**왕상1228 Note**

**Cross check 출3201-06**

출3201.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지체하는 것을 백성이 보았을 때에, 백성이 그들 자신들을 아론에게로 함께 모으고 그에게 말하니라, 일어나서, 우리에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들[엘로힘:엘로아흐(신성,하나님,신)의 복수형,신(神)들, (복수형으로 관사와 함께 사용되어) 지존하신 하나님, 천사들,뛰어난,하나님 같은,매우 위대한,능한,재판장]을 우리에게 만들라, 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왔던 사람인 이 모세에 대해서는,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,

출3204. 이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, 그가 그것을 주조된(맛쎄카:쏟기,용해,주조한 형상,제사술,동맹,침대의 덮개,주조된 덮개,부어만든 형상,너울,휘장) 송아지[에겔:(숫)송아지,불알깐 수소,거세한 소,송아지]로 만든 후에, 그것을 새기는 도구로써 모양을 형성하니라(쭈르:속박하다,한정하다,장악하다,포위하다,동여매다,모양을 형성하다,요새화 하다,에워싸다,포위공격하다), 그리고 그들이 말하니라, 오 이스라엘아, 이들의 것들이 너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던 네 하나님들이니라,

출3205.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, 그가 그것 앞에 제단을 세우니라, 아론이 공공연히 공포하여 (카라: 부르다,이름을 부르다,자신을 드러내다, 명해진 것,외치다,유명한,청함 받은,초대하다,언급하다, 이름을 짓다,전파하다,선언하다,선포하다,공포하다,읽다,말하다), 말하니라, 내일은 여호와[예호봐,야붸: 자존(自存)자,영원한 자,여호와,주님]께 성일[하그:거룩한 절기,또는 그것의 희생제물,(거룩한)성일,제물,제전]이니라,